

## 플래퍼 패션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

김 경 진\* · 금 기 숙\*\*

배재대학교 의류패션학과 강사\* ·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패션디자인과 교수\*\*

### A Study on the Aesthetic Sense of Flapper Fashion

Kyung-Jin Kim\* · Key-Sook Geum\*\*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PaiChai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extile Art &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

(투고일: 2010. 8. 3, 심사(수정)일: 2010. 9. 8, 게재확정일: 2010. 10. 3)

#### ABSTRACT

As modern society advances, women's self-consciousness and attitudes toward beautiful appearances have changed. Amid this trend, the young and slim body of adolescent girls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incites fantasy on continuing youth among women. In modern society, women's youth is frequently regarded as a subject of consumption and a sex product in the mass media. In this regard, the study is focused on examining desire and psychology of worshipping women's youth and beauty in connection with flapper fashion in the 1920s. In the process, the study took a look at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flapper fashion and conducted an analysis on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aesthetic sense of flapper fashion as follows: First,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include a short skirt that expresses straight lined shape and the beauty of exposure, lighter clothing, thick make-up, short hair style and black or vivid colors, and they lead to exceptional and innovative aesthetic sense in flapper fashion. Flapper fashion style is focused on completely denying outdated fashion worn by women in the age right before. Second, pursuit of mature, graceful and classical beauty that had continued in previous ages has gone through complete changes in the flapper era in the name of pursuit of youth, and the flapper fashion expresses sensual image through the exposure of slim arms and legs of a young girl. I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esthetic sense of youth and sensuality inherent in the flapper fashion was generated. Third, women's free-spirited lifestyle at that time and 'aesthetic sense of freedom and amusement that reflected the speed of machine civilization could be found in the flapper fashion. Material and decoration of the flapper fashion pertained to clothing that enabled a free expression through rapid movements. Aesthetic sense of the flapper fashion generated in the process could be defined as women's internal determination to express individual and free-spirited ideas through the use of fashion when tradition and order of the old age were torn down. And this aesthetic sense is continuously affecting modern fashion design.

Key words: flapper fashion(플래퍼 패션), youth(젊음), slim body(날씬한 몸), freedom(자유), Innovation(혁신)

## I. 서론

현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현대 여성들의 자아의식과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태도 또한 변화되고 있다. 산업사회의 발전은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매스미디어를 통해 '유행'이라는 아름다움의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여성들의 '아름다운' 외모를 위한 소비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1990년대 이후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전형적인 사춘기 소녀의 젊고 날씬한 몸은 여성들에게 '지속되는 젊음'에 관한 환상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20세기 중반 이후 패션에서 청소년층을 겨냥한 브랜드의 거대한 증가는 소비 주체로서의 미성숙한 여성성을 암시하는데, 여기서 젊음의 승배는 소비상품과 결합하는 특성을 지닌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젊음은 대중 매체에서 소비의 주체이자 성상품으로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결국 남성에게는 환타지의 대상이 되며, 여성들 본인에게는 젊음에 대한 끝없는 갈망과 물질적 소비를 추구하게 한다.

현대 패션에서 젊음에 대한 구체적 담론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미국 신여성 플레퍼의 등장은 근대화 및 소비자본주의의 발달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1920년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변화가 발생한 시기였고 기계화, 대중화, 소비사회 등 현대 미국 사회의 특성을 형성하고 뚜렷하게 보여준 시기였다. 전후 경제적 번영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 속에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 양식,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플레퍼는 일련의 변화들을 받아들이고 형성해 나간 과정의 중심에 있었다.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과 미래에 대한 신념의 상실은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관심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경제적 번영과 맞물려 여성의 직업창출과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플레퍼의 파격적인 스타일은 상품화되어 널리 유행하였고, 플레퍼 패션은 모든 여성들의 소비욕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성의 젊음과 아름다움 승배에 대한 욕구와 심리를 플레퍼 패션과 관련시켜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플레퍼 패션의 배경이 되는 1920

년대 미국의 문화적 특징과 플레퍼의 내적정신을 규명하고 플레퍼 패션의 미의식을 탐구함으로써,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여성성의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현대 패션 디자인에 새로운 인스피레이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레퍼의 시대적 배경이 된 1920년대 미국의 문화와 사회상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플레퍼 패션에 대한 외적 접근을 통해서 플레퍼 패션이란 무엇이며, 그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플레퍼 패션의 미의식을 도출해 내고, 이러한 미학적 규명을 토대로 그것이 시대를 초월해서 지속되고 있는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를 규명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와 패션 및 미술사 관련문헌을 중심으로 플레퍼 패션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종 패션잡지와 패션 사진집,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플레퍼 패션의 특징인 로 웨이스트와 짧은 스커트의 유행이 표현된 1920년대의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1920년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변화가 발생한 시기였고, 기계화로 인한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인해 현대 미국 사회의 특징을 생성하게 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또한 플레퍼가 출현하게 된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관한 연구를 통해, 플레퍼의 조형적 특징뿐만 아니라 그것의 내적 미의식을 도출하려 한다.

## II. 이론적 고찰

### 1. 용어 정의

플레퍼는 '짧은 드레스, 짧은 헤어 스타일의 매우 모던한 생각을 가진 1920년대 페셔널한 젊은 여성'이라는 설명<sup>1)</sup>과 어린 야생오리나 1920년대의 십대 소녀를 가리키는 속어<sup>2)</sup>라는 설명이 있다.<sup>3)</sup>

이희승의 '국어대사전'<sup>4)</sup>에서는 플레퍼를 '알가닥, 말팔랑이, 멧쟁이 여자'로 설명했고, 조규화의 '복식

사전<sup>5)</sup>에서는 ‘말괄량이 소녀의 의미. 이전의 사회. 도덕적 제약을 받지 않고 행동을 하는 1920년대의 젊은 여성을 가리킨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페네티(Charles Peneti)는 미국의 대중문화사의 맥락에서 유행상품을 설명하면서 플래퍼란 1700년대 중반 영국에서 막 날기 시작한 ‘야생오리’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설명한다. 그 후 18세기에 ‘머리를 핀으로 묶지 않고 길게 늘어뜨려 산들바람에 휘날리게 하는 젊은 여자를 뜻하는 말로 변했다’고 한다.<sup>6)</sup>

그 후 1920년대 중반부터 소위 ‘반항적이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모던걸(Modern Girl)’을 칭하게 되어 ‘플래퍼는 곧 현대’라는 단적인 표현이 되었다.<sup>7)</sup> 즉, 플래퍼란 재즈시대에 유행에 민감하고 도덕적 제약을 받지 않고 행동하는 1920년대 미국의 젊은 여성<sup>8)</sup>으로,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들의 삶의 태도를 포함한다.

한편 플래퍼 시기에 프랑스에는 플래퍼와 매우 유사한 태도와 스타일을 가진 가르손(La Garçonne)이라는 신여성이 있었다. 미국의 복식사학자인 스틸(Steel)은 플래퍼 패션과 가르손 패션의 차이점에 대해 어떤 스타일의 형태적 특징보다 그 의미나 이미지에 두었는데, 플래퍼 패션은 ‘젊음’의 이미지에, 가르손 패션은 ‘소년’ 이미지에 그 차이를 두었다.<sup>9)</sup> 즉 플래퍼 패션과 가르손 패션은 내적인 의식의 차이를 보였는데, 플래퍼는 젊음 지향, 가르손은 남성과 경쟁하려는 의도가 강한 매니시(mannish)지향이 목적이었다.<sup>10)</sup>

## 2. 사회·문화적 배경

### 1) 재즈와 댄스

1920년대는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던 때로,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바탕으로 소비와 쾌락주의가 만연한 가운데 대중문화가 태동되기 시작. 라디오가 처음 보급되기도 하였다. 이런 연유에서 플래퍼들은 재즈와 댄스 없는 관계가 되었고, 이들의 자유분방한 삶은 음악가와 소설가의 작품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재즈(Jazz)란 미국의 흑인 음악과 유

럽의 백인음악의 만남으로부터 태어난 예술이며<그림 1><sup>11)</sup> 그 매력은 ‘살아있다’는 것이다.<sup>12)</sup> 또한 ‘재즈’라는 말은 ‘시끄러운, 음란한, 열광적인’이라는 뜻의 속어로도 사용되었다.<sup>13)</sup> 재즈는 열정적이고 풍부한 즉흥 연주 스타일로 볼 수 있듯이, 당시의 자신감 넘치는 사회상을 직접 반영했다.

재즈에 맞추어 새롭고 힘 있는 춤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등장했다. 찰스톤(Charlestone)은 1923-1926년까지 유행한 춤으로 재즈시대를 대표하는 춤이었다. 양쪽 발을 안팎으로 돌리면서 발가락을 안으로 오므려 균형을 잡으면서 다리를 마음껏 흔들고 몸을 이쪽저쪽으로 흔드는데, 손으로 미친 듯이 무릎을 치면서 ‘춤을 춤시다’라고 외쳤다. 블랙 버텀(Black Bottom)<그림 2><sup>14)</sup>은 찰스톤의 인기가 시들해지자 1926년에 등장한 엉덩이를 요란하게 흔들어대는 카리브 연안 스타일의 춤이었다. 당시 성적 매력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에게 이 춤은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블랙 버텀은 엉덩이를 흔들 뿐만 아니라 찰스톤처럼 무릎을 흔들고 발뒤꿈치를 박차는 스타일이 있었다. 심미(Shimmy)는 프랑스어의 슈미즈를 뜻하는 1920년대 속어에서 유래되었다. 배우 질다 그레이(Gilda Gray)가 ‘심미(슈미즈)를 벗어 던지겠다’면서 몸을 비틀어대자 옷이 미끄러져 내리면서 이 춤이 나왔다고 한다. 찰스톤과 블랙 버텀을 닮은 이 춤은 술 장식이 달린 옷을 입고 추어 관능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sup>15)</sup> 심미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춤이었고 곧 세계적으로 유행했다.<sup>16)</sup>

### 2) 기계문명의 발달

20세기 초반 자동차<그림 3><sup>17)</sup>, 축음기, 레코드, 라디오의 발명은 물리적 거리를 좁혔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좁혀서 시간적 여유와 생활의 자유를 불러 일으켰다.<sup>18)</sup> 또한 많은 작가와 미술가, 건축가, 영화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산업 기술의 발달로 인한 ‘현대 사회의 기계화’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sup>19)</sup> 기계의 가능성은 무한대였고 인류에게 보다 자유로운 시대를 보장하였으며 적은 가격에 원하는 필수품을 갖게 했고 모든 삶의 방법이 향상되고 편안함을 가져왔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1〉 재즈콤보 오리지날  
덱실랜드 재즈 밴드.  
*Jazz*, 1917, p. 27.



〈그림 2〉 블랙 버탐을 추는  
플래퍼들의 열광적인 몸짓.  
*Fashion of a Decade: 1920's*,  
1994, p. 30.



〈그림 3〉 포드 자동차와  
여성의 모습. *New York  
Fashion: The Evolution of  
American Style*, 1996, p. 36.



〈그림 4〉 광란의 파티를  
즐기는 플래퍼들을 풍자한  
일러스트레이션. *Fashion of  
the Roaring '20s*, 1996, p. 7.



〈그림 5〉 당시 자유로운 젊은  
여성을 대표한 영화배우  
클라라 보. *20세기 패션*,  
1992, p. 87



〈그림 6〉 플래퍼 스타일의  
상징 여배우. 클라라 보.  
*플래퍼 패션 디자인 연구*,  
1998, p. 71.



〈그림 7〉 보브 헤어 스타일을  
한 배우 루이즈 부룩스.  
*플래퍼 패션 디자인 연구*,  
1998, p. 83.



〈그림 8〉 노출이 많은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루이즈 브룩스.  
*플래퍼 패션 디자인 연구*,  
1998, p. 87.

고 기계의 시대는 분명 인간들에게 여유 시간을 제공하였고, 상품 디자인에 있어 대체로 기하학적, 구축적 형태를 사용하거나 기계를 구성요소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sup>20)</sup>

한편 유럽의 산업화는 미국보다 느렸다. 따라서 자연히 미국의 산업화를 모방하게 되었고 패션에서도 미국 주도의 분위기 속에서 이끌어 지는 시대가 되었다.<sup>21)</sup> 파리에서는 '재즈' '파티'〈그림 4〉<sup>22)</sup> 그리고 '카테일 셰이커'와 같은 용어를 '아메리카니즘'으로 취급했다. 이러한 단어들은 패셔너블한 만남의 장소, 예를 들면 상제리제의 극장이나 라 시갈르 뮤직홀(La Cigalle Music Hall)등에서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당시 미국적인 스타일이 파리에 새로운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암시한다.<sup>23)</sup>

### 3) 영화산업

플래퍼 시대에 젊은 세대들의 중요한 오락 생활이었으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영화였다. 젊은 세대들은 클라라 보(Clara Bow)〈그림 5〉<sup>24)</sup>, 〈그림 6〉<sup>25)</sup>, 루이즈 부룩스(Louise Brooks)〈그림 7〉<sup>26)</sup>, 〈그림 8〉<sup>27)</sup>, 글로리아 스완슨(Gloria Swanson)과 같은 여배우들은 보고 그들의 삶을 모방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루이즈 부룩스는 미국의 대표적 플래퍼이며 댄서이자 쇼걸, 또 무성영화의 주인공으로서, 재즈 시대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브룩스의 이미지는 그 시대의 화려함의 반영이었고, 작곡가 조지 거슈윈(George Gershwin), 작가 스코트 피츠제랄드(F. Scott Fitzgerald), 로버트 벤츨리(Robert Benchley), 맥켄(H. L. Mencken)과 아나타 루스(Antia Loos) 같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명한 인물들을 포함한 사회적 그룹의 한 일원이었다. 1920년대 브룩스의 세련된 외



〈그림 9〉 영화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의 장면. 플래퍼 패션 디자인 연구, 1998, p. 74.



〈그림 10〉 헬드(John Held Jr.)의 만화. 가는 다리의 어린 플래퍼의 모습. 플래퍼 패션 디자인 연구, 1998, p. 72.



〈그림 11〉 1890년 찰스 깁슨(Charles Dans Gibson)이 그린 깁슨 걸. The Encyclopedia of Fashion, p. 67.



〈그림 12〉 빅토르 마르그리트의 소설 '가르손'의 표지. 20세기 패션, 2003, p. 64.



〈그림 13〉 장 파투의 테니스 의상을 입은 수잔 랭글런. 1927. 플래퍼 패션 디자인 연구, 1998, p. 73.



〈그림 14〉 장 파투가 디자인한 저지 수영복. 20세기 패션 아이콘, 2009, p. 54.



〈그림 15〉 무릎 길이의 테니스 점퍼, 저지 가디건. 1928. Fashion of the Roaring, '20s 1996, p. 73.



〈그림 16〉 수영복 패션쇼. 프랑스 도빌, 1928년. 20세기 패션 아이콘, 2009, p.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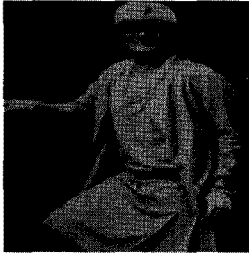
〈그림 17〉 더 단순한 형태의 수영복이 일광욕과 함께 유행. 20세기 패션, 1992, p. 81.

모와 상징적인 보브 헤어 스타일은 플래퍼 룩의 상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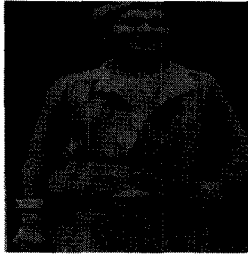
#### 4) 문학작품

플래퍼의 삶을 다룬 소설들도 많이 등장하였다. 엘린노어 글린(Elinor Glyn)은 '잇 It(1927)'이라는 작품으로 여성들을 위한 연애 소설 장르를 개척했다. 이 소설은 플래퍼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연애관을 과감히 표현하여 그녀를 20세기 초반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sup>28)</sup> 퍼시 막스(Percy Marks)는 소설 '플라스틱 시대 The Plastic Age(1924)'에서 환락과 유흥에 취한 당시의 파티문화를 묘사했는데, 대중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다음 해 클라라 보주연의 영화로 제작되었다.<sup>29)</sup>

그리고 20년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작가로 스코트 피츠제럴드(F. Scott Fitzgerald)가 있다. 피츠제럴드의 '낙원의 이쪽(This Side of Paradise)(1920)'과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1925)'〈그림 9〉<sup>30)</sup>에는 플래퍼 시대의 기록이라 할 만큼 플래퍼의 반항적 행동과 정신이 잘 표현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소설에서 플래퍼를 "사랑스럽고 사치스러운 19세 전후의 소녀"로 소개했고, 화가인 존 헬드 주니어(John Held Jr.)는 그의 그림에 걸어 다닐 때 마다 "flapping" 하는 소리가 나는 스트랩 슈즈를 신은 어린 소녀들〈그림 10〉<sup>31)</sup>을 묘사했다.<sup>32)</sup> 또한 헬드는 "1890년대를 깁슨 걸〈그림 11〉<sup>33)</sup>이 대표했다면 플래퍼들은 1920년대를 대표한다."라고 말했다.<sup>34)</sup> 〈그림 12〉<sup>35)</sup>는 빅토르 마르그리트의 소설 '가르손'의 표지로, 가르손 룩은 이 소설에서 명칭을 따왔다고 한다.



〈그림 18〉 카디건, 폴리츠 스커트를 입은 샤넬. Chanel; Her Style and her Life, 1998, p. 74.



〈그림 19〉 단순한 스타일의 자켓을 입은 샤넬. Chanel; Her Style and her Life, 1998, p. 46.



〈그림 20〉 바지를 착용한 샤넬. Chanel; Her Style and her Life, 1998, p. 67.



〈그림 21〉 플레퍼 스타일의 구두와 스타킹. Le Style des Annes 20 et 30, p. 39.

기성세대가 이루어 놓은 물질적인 부를 통한 번창과 전쟁이라는 경험은 젊은 세대 특히 가정에 머물기를 강요받았던 젊은 여성들도 하여금 자유라는 탈출구를 갈망하게 하였다. 그들은 생활에 있어서 항상 정숙과 자제만을 요구하는 구시대의 미덕보다는 자발성과 자기 표현을 값있게 여겼으며, 그들의 이러한 행동양식은 낡은 인습에서 탈피하려는 자각적인 반항의 의지였다.<sup>36)</sup>

### 5) 여가생활과 스포츠

1920년대의 패션에서 기능성을 추구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또 하나는 그 당시의 이상적인 여성미였던 젊고 슬림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 스포츠는 중요한 덕목이 되었기 때문이다. 프로 테니스 선수 수잔 랭글린〈그림 13〉의 테니스 웨어를 디자인 하여 유명했던 디자이너 파투(Jean Patou)의 스타일〈그림 14〉<sup>37)</sup>은 엄격한 단순미와 말쑥함이며 깨끗한 선, 기하학적 엘레강스를 특징으로 했다. 이러한 성격은 큐비즘과 아르데코의 장식태도와 관계되었다.<sup>38)</sup> 플레퍼 패션을 대표하는 샤넬과 파투는 결국 둘 다 같은 목적을 위해 프릴 장식을 버리고, 보다 입기 편리한 옷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새로운 경향으로서 기능성과 단순함을 추구하였다.<sup>39)</sup>

스포츠의 생활화로 인해 다양한 디자인의 스포츠 웨어가 등장했다. 여성용 테니스 웨어〈그림 15〉<sup>40)</sup>는 활동성을 더욱 부여하기 위해 스커트의 길이는 짧아지고, 주름을 주어 움직임이 편하게 했다. 여성용 수

영복도 심미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디자인들이 발표되었다. 〈그림 16〉<sup>41)</sup> 〈그림 17〉<sup>42)</sup> 이는 여성의 신체 노출에 대해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한 증거라고 볼 수 있으며, 플레퍼 패션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 6) 페미니즘

제1차 대전이 끝난 후 여성들은 세기말부터 진행하고 있었던 남녀평등, 참정권의 요구와 더불어 여성 해방운동을 펼치고 있었고, 이런 사상적,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산업이 발달하고 프로이드를 비롯한 혁신적인 사상들이 유행하면서 새로운 여성상이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 발달의 혜택을 누리기 쉬웠던 도시의 여성들에게 가장 잘 발견되었다.<sup>43)</sup>

역압에서 벗어나 자유연애를 즐기고 개성적이며 활동적이었던 여성들은 폴리츠나 개더로 폭을 넓은 길이가 짧아진 스커트에 낮은 구두〈그림 18〉<sup>44)</sup>를 즐겨 신었다. 단순한 디자인의 심플한 자켓〈그림 19〉<sup>45)</sup>, 카디건 수트, 팬츠〈그림 20〉<sup>46)</sup> 등은 유행을 추종하는 여성들이 착용하는 의상이 되었다. 또한 16세기 이래 유행의 관심이었던 가슴과 허리가 스커트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다리로 옮겨가게 되며 그 결과 스타킹이나 구두〈그림 21〉에 열광하게 되었다.

### 3. 아르데코와 플래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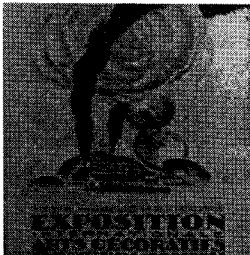
#### 1) 아르데코의 등장과 특징

아르데코(Art Deco)는 20세기 초에 나타난 장식 미술의 한 양식으로 그 정점은 1925년 '파리 국제 장식 미술전(Paris Exhibition of Decorative Art)'〈그림 22〉라고 볼 수 있다.<sup>47)</sup> 이 박람회에서 형태는 기능을 따라야 한다는 개념과 기계의 대량생산을 위한 새로운 모더니즘의 철학을 소개하여 장식 예술의 흐름에 큰 자극이 되었다. 아르 데코 양식은 단순하고 기능적인 기하학적 양식화〈그림 23〉,〈그림 24〉에서 출발하였는데, 이것은 현대성을 추구한 당시 예술 사조를 반영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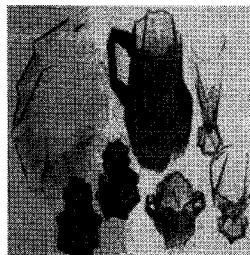
아르데코를 형성시킨 가장 중요한 실험은 피카소(Pablo Picasso, 1880-1974)와 브라크(Georges Braque,

1882-1963)에 의해 시도된 큐비즘(Cubism)이다. 큐비즘 작가들은 대상을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로 변형하여 그 대상을 변형과 왜곡, 재조합을 거쳐 그로테스크를 창출하였고, 기존의 미의식을 전복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큐비즘은 원시적인 아프리카인의 조각의 영향을 받아 생략, 단순화, 기호화된 형태로 자연물이나 종교적 측면을 상징화시키고 왜곡시켰다.<sup>48)</sup>〈그림 25〉, 〈그림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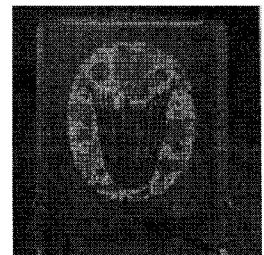
아르데코의 표현특성은 큐비즘의 영향과 기계미학의 영향을 받은 단순성(Simplicity)과 아프리카 스타일, 러시아 발레단과 투탕카멘 무덤의 발굴의 영향으로 나타난 이국풍 등을 들 수 있다. 1908년 러시아 발레단은 유럽에 진출하여 동양과 아프리카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선보였다. 이 발레단의 의상을 디자인한 레옹 박스트(Leon Bakst)는 야수파의 대담하고



〈그림 22〉 아르데코 포스터, 1925, 이원숙 (1995), *아르데코 직물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15.



〈그림 23〉 기하학의 컵과 그릇들, 1931, 이원숙 (1995), *아르데코 직물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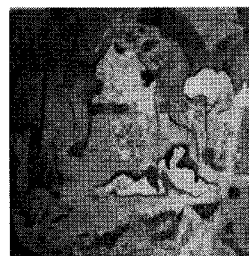
〈그림 24〉 Jacques-Emile Ruhlmann, 1916, 한효정 (2003), *소니아들로네 패션디자인 작품의 색채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7.



〈그림 25〉 아비뇰의 처녀들, 파블로 피카소, 1907, The Museum of Modern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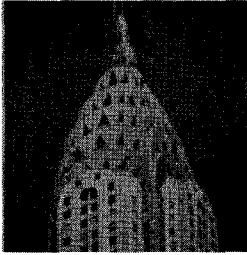
〈그림 26〉 레스타크의 집들, 조르주 브라크, 1908, Museum of B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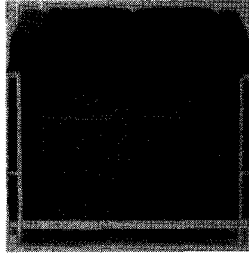
〈그림 27〉 생의 기쁨, 앙리 마티스, 1906, *The Barnes Foundation*, Merion, Pennsylvania. Photo-Barnes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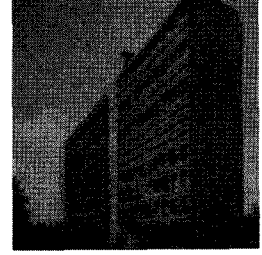
〈그림 28〉 레옹 박스트, *Ballet Russes*, 1910s, Raymond Hood&Associated Architects,



〈그림 29〉 크라이슬러 빌딩.  
플래퍼 패션 디자인 연구,  
1998, p. 69.



〈그림 30〉 르 꼬르뷔지에의 기능적이고  
현대적인 의자 디자인. 코디 최(2009),  
20세기 문화지형도,  
서울: 안그라픽스, p. 48



〈그림 31〉 베를린에 있는 르 꼬르뷔지에  
하우스. 코디 최(2009), 20세기  
문화지형도, 서울: 안그라픽스, p.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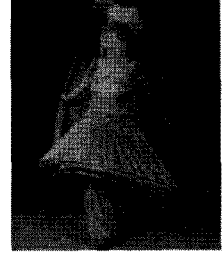
〈그림 32〉 S-curve 드레스.  
ファッション  
18世紀から現代まで,  
2002, p. 338.



〈그림 33〉 아르누보 스타일의  
모자. 20세기 패션,  
1992, p. 40.



〈그림 34〉 폴 푸아레 드레스.  
100 Years of Fashion  
Illustration, pp. 30-31.



〈그림 35〉 루실(Lucile)의  
디자인, 1923.  
아르데코 패션을 응용한 패션  
디자인 연구, 2003, p. 21.

화려한 원색〈그림 27〉, 러시아 민속예술의 옴아트(Op Art)적인 역동감과 화려한 문양, 고대 그리스의 양식, 오리엔탈 풍의 태슬(tassel), 터번(turban), 스카프, 깃털, 구슬장식, 기하학적 형태의 실루엣 등을 표현하였다.<sup>49)</sup>〈그림 28〉.

아르데코 건축 양식의 특징은 장식이 없는 것으로 기능미를 추구하는 현대 기계문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아르데코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윌리엄 반 알렌(William Van Alen)이 설계한 크라이슬러 빌딩(Chrysler Building)〈그림 29〉은 건물의 형태, 외관, 특히 삼각형의 천장과 아치의 형태, 이집트 풍의 식물적 모티프를 사용한 엘리베이터의 장식에서 아르데코 적인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모더니즘 건축의 선구자인 르 꼬르뷔지에〈그림 30〉는 “건물은 주거를 위한 기계”라고 말하면서 건축〈그림 31〉에 있어서 기능성을 더욱 강조하였다.<sup>50)</sup> 이와 같이 아르데코 건

축에서 건물이나 기타 조형 등은 기능에 아주 적합한 형으로 디자인 되었고, 여기에서 새로운 미를 발견했던 것이다. 이것은 아방가르드한 미술, 즉 큐비즘, 러시아 구성주의, 미래주의에서 시작되었다.<sup>51)</sup>

## 2) 아르데코와 패션

19세기 말은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문화를 이어받은 시기로 벨 에포크, 또는 에드워드안 시대로 불린다. 패션에서도 정교하고 사치스러움과 화려함을 추구하였고 여전히 코르셋이 착용되었다. 허리를 조이고 hips을 강조한 S-Curve의 굴곡진 형태〈그림 32〉<sup>52)</sup>는 길게 휘어져 흐르며 물결치는 듯한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그림 33〉<sup>53)</sup>의 모자 스타일은 여전히 매우 넓은 창과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되어 당시 예술사조인 아르누보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푸아레(Poiret)는 가슴과 허리를 강조했던 아르누





〈그림 36〉 캐주얼하고 단순한 직선형의 1920년대 샤넬의 의상. *플래퍼 패션 디자인 연구*, 1998, p. 75.



〈그림 37〉 인형에 피팅 중인 비오네. 자료검색일 2010. 9. 26. <http://blog.naver.com>



〈그림 38〉 파투, 겨울 스포츠 슈트, '노르웨이' 1927, *패션 아이콘*, 2009, p. 55.



〈그림 39〉 심플하고 시크한 스타일의 파투의 드레스. 1920년대. *플래퍼 패션 디자인 연구*, 1998, p. 76.

보 스타일을 벗어나, 혁신적인 디자인을 발표했다. 그가 디자인한 옷은 몸을 덜 조였고, 현대적이면서 동시에 이국적이었다.〈그림 34〉<sup>54)</sup>. 전통적인 코르셋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킨 푸아레는 직선적으로 흐르는 단순한 외형을 만들어냈고, 이것은 아르데코의 기하학적 스타일을 반영한 것이었다. 의상 형태에서 기하학적 양상은 인체의 형을 배려하지 않고 납작하게 표현된 평면적 실루엣과, 또는 그와는 반대로 기하학적 특성을 과장하여 입체적인 도형으로 형성된 실루엣(〈그림 35〉<sup>55)</sup>)으로 나타났다.

푸아레 의상의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1920년대 전반 패션은 전통적인 페미닌 스타일과 모던 스타일, 두 종류가 주도했다. 미국에서는 타페(Tappe), 런던에서는 루실(Lucil), 그리고 파리에서는 파갱(Paquin), 칼로 자매(Callot Soeuts), 마르티알 에 아르망(Martial et Armand)과 잔느 랑뱅(Jeanne Lanvin)은 전통적인 로맨틱 스타일을 디자인 했다. 1920년대 중반 이후의 패션 경향은 여성의 곡선미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짧은 스커트와 직선적인 실루엣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들은 하나의 납작한 모양을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이것은 이 후 직선적이고 활동적인 '플래퍼 스타일'로서 전개되었다. 샤넬(Gabriel Chanel)과 파투(Jean Patou)가 이 스타일을 선도했으며, 그 외에 두세(Doucet), 제니(Jenny), 랑뱅, 파갱, 도외유(Doeuillet), 몰리뉴스(Molyneux), 루이즈 블랑제(Louise Boulanger)가 있었다.<sup>56)</sup>

당시 피카소, 레제, 주앙그리(Juan Gris) 등 입체파적 표현주의의 영역에 속하는 예술가들과 긴밀한

창작활동을 통해 단순미와 표현을 추구하였던 샤넬은 1920년대의 대표적인 의상 스타일을 통해 직선적인 의상형태를 보여주었다.〈그림 36〉<sup>57)</sup>. 샤넬 이외에도 샤넬에게서 영향을 받은 장 파투나, 비오네(Madeleine Vionnet)(〈그림 37〉<sup>58)</sup>) 등의 디자이너들은 아르데코와 큐비즘의 단순성에 입각한 기하학적 스타일의 새로운 패션을 만들어 냈다.<sup>59)</sup>

프로 스포츠 선수를 위한 디자인으로 알려진 장 파투(Jean Patou)의 가장 유명한 고객은 프랑스의 테니스 챔피언 수잔 랭글런이었다. 파투는 경기복과 일상복을 모두 디자인했으며, 줄무늬와 색 면, 기하학적 패턴을 사용한 파격적인 디자인을 발표했다. 파투는 수영, 승마, 골프와 스키용 의상(〈그림 38〉<sup>60)</sup>)도 만들었으며, 기능성과 스타일을 결합한 스포츠 웨어 뿐만 아니라, 단순하면서도 우아하고 절제된 이브닝 웨어(〈그림 39〉<sup>61)</sup>)를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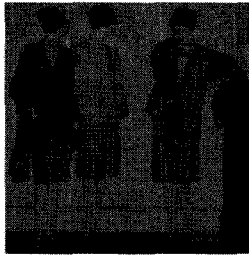
### Ⅲ. 플래퍼(Flapper)패션의 조형적 특징

#### 1. 절제되고 단순한 형태

1920년대는 1924년 보그(Vogue)에서 '실루엣은 2점 사이를 잇는 가장 단순한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다.'<sup>62)</sup>라고 묘사하였듯이 '단순미의 숭배(The Cult of Simplicity)'가 최대의 가치였다. 이전의 성숙한 귀부인(Grand Dame)의 이미지는 이제 더 이상 대중들이 원하지 않게 되었고 단순한 현대적 아름다움을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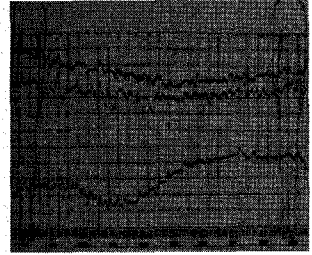
〈그림 40〉 1920년대의 이상적인 머리형의 플래퍼. *20세기 패션*, 모습, *Fashion of the Roaring 20's*, 1996, p.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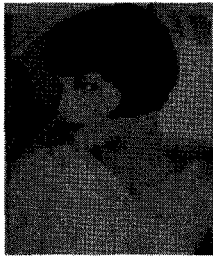
〈그림 41〉 짧아진 스커트, 짧은 머리형의 플래퍼. *20세기 패션*, 1992, p.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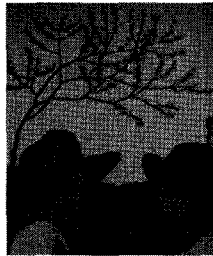
〈그림 42〉 여유 있는 형태의 로 웨이스트 드레스(1922), *Fashion of the Roaring 20's*, 1996, p. 32.



〈그림 43〉 폴 H. 니스트롬의 웨이스트 라인, 험라인, 힙라인의 변화 그래프. 1920, *플래퍼 패션 디자인 연구*, 1998, p. 79.



〈그림 44〉 루이즈 부룩스의 헤어 스타일, 영화 시카고의 복식과 색채이미지 연구, 2008, p.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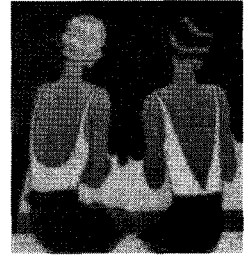
〈그림 45〉 크로세 모자, *20세기 패션*, 1992, p. 84.



〈그림 46〉 등과 팔이 노출된 이브닝 드레스 1926, *Fashion of the Roaring 20's*, 1996, p. 51.



〈그림 47〉 비치는 소재가 사용된 드레스, *Fashion of the Roaring 20's*, 1996, p. 49.



〈그림 48〉 그을린 피부의 노출, 1920년대, *플래퍼 패션 디자인 연구*, 1998, p. 88.

하게 된 것이다.<sup>63)</sup> 단순미의 추구는 직선형 실루엣 〈그림 40〉<sup>64)</sup>, 짧은 스커트, 그리고 짧은 헤어 스타일 〈그림 41〉<sup>65)</sup>로 표현되었다. 허리선은 헐렁해졌으며 허리 선이 낮게 재단된 짧은 sack( sack) 드레스 디자인 〈그림 42〉<sup>66)</sup>도 나타났다.

폴 h. 니스트롬(Paul H. Nistrom)은 '패션의 경제학'에서 그래프 〈그림 43〉<sup>67)</sup>를 사용하여 전후 미국의 10년간의 스커트 길이의 동향을 독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허리선은 19세기 말에 하이 웨이스트였던 것이 1920년대 초반에는 가슴과 허리의 중간 부분으로 나타나고 1921년대 허리 부근으로 내려왔으며, 1922년에 힙 부근으로 떨어졌다.<sup>68)</sup> 1929년에는 이미 다음 시기를 예고하듯이 길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이 등장하고 있어 플래퍼의 단순한 전형적인 모습은 스틸(Valeree Steel)의 지적<sup>69)</sup>처럼 1920년대 까지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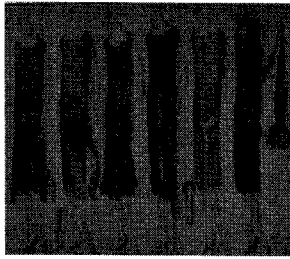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플래퍼 패션의 단순미는 헤어 스타일에도 나타났다. 특히 배우 루이즈 부룩스 〈그림 44〉<sup>70)</sup>의 스마트하고 기하학적인 짧은 헤어 스타일은 플래퍼들에게 인기가 있었다.<sup>71)</sup> 이러한 짧은 헤어스타일과 함께, 20년대 중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크로세모자 〈그림 45〉<sup>72)</sup>는 깊게 눌러 씌워져 눈썹을 가리고 목선까지 내려오는 형태였다.

심플한 실루엣과 함께 짧아진 스커트로 인한 다리의 노출, 숏 헤어 스타일, 소매 없는 옷의 등장으로 팔과 등의 노출 〈그림 46〉<sup>73)</sup>, 그리고 얇고 비치는 소재에 의한 피부의 간접 노출 〈그림 47〉<sup>74)</sup> 등이 나타났다. 직선적이고 단순한 실루엣에 에로틱한 분위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성들은 육체의 노출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노출된 피부에 현대적 세련미를 더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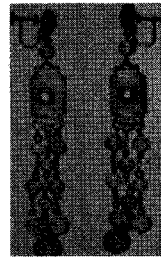
〈그림 49〉  
프릴과 리본이  
사용된 드레스,  
20세기 패션, 1992,  
p.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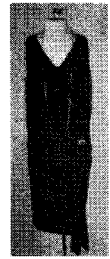
〈그림 50〉  
프릴, 플라운스, 플레어 등을  
이용하여 리듬감을 표현한  
데이 웨어.  
New York Fashion,  
1996, p. 83.



〈그림 51〉  
비즈 프린징 으로  
장식한 의상. *New  
York Fashion*, 1996,  
p. 81.



〈그림 52〉  
댕글링 이어링.  
*Fashion of the  
Roaring 20's*,  
1996, p. 36.



〈그림 53〉  
로 웨이스트에  
비대칭으로  
드레이프 시킨  
드레스, *Fashion of  
the Roaring 20's*,  
1996, p. 27.

는 방법으로 선탠(suntan)〈그림 48〉<sup>75)</sup>이 유행하였다.

## 2. 가볍고 흔들리는 소재와 장식

1920년대는 전후 시대의 암울하고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을 탈피하고, 댄스와 음악에 열광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는데, 춤 출 때 마다 끝자락이 펄럭이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기장을 짧게 하고, 플라운스나 프릴 장식〈그림 49〉<sup>76)</sup>,〈그림 50〉<sup>77)</sup> 등을 달았다. 헴 라인 등 옷의 부분 부분에 비즈나 구슬 등을 길게 늘어 붙였던 것〈그림 51〉<sup>78)</sup>이 플래퍼 패션의 시발점이었다. 구슬 등의 단단한 부자재를 이용한 이런 장식이나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그림 52〉<sup>79)</sup>는 움직임 때마다 구슬이 부딪쳐 독특한 소리를 만들어 플래퍼 패션을 특징짓는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1920년대의 플래퍼 패션에서는, 비대칭적인 구성으로 의상의 한쪽에만 장식을 하거나, 스커트의 헴 라인 길이를 다르게 하는 등의 새로운 디테일이 시도되었다.〈그림 53〉<sup>80)</sup>. 이것은 비대칭적인 장식이 대칭의 균형보다 더 변화롭고, 리듬감을 주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리듬감의 표현을 위해 소재의 가벼움은 중요한 요소였다. 무거운 소재는 휘날리는 느낌을 나타내는데 어려웠기 때문에 가벼운 소재를 추구하게 되었다. 특히 레이온 소재의 등장은 스타킹 뿐 아니라 다른 패션 요소에도 영향을 끼쳐 가벼운 신소재로 당시 패션을 지배했다.<sup>81)</sup> 천연실크의 촉감과 외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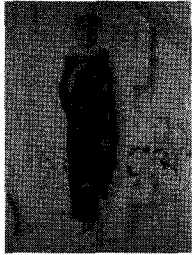
닮은 레이온은 초기에는 값싼 의류의 안감이나 라제리, 그리고 장식에 사용되었으나 차츰 스타킹 생산에 많이 이용되었다.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생산기술의 발달로 마무리 처리가 개선되어 레이온이 최신 유행의 니트웨어 뿐만 아니라 데이 웨어와 이브닝 웨어에도 사용되기 시작했다.<sup>82)</sup>

## 3. 새롭고 흥미로운 색과 문양

### 1) 블랙(Black)과 비비드 컬러(Vivid Color)

큐비즘은 아르테코에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에 영향을 미쳤고, 러시아 발레단은 아르테코 색채에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 발레단의 공연은 비비드 컬러(vivid color)의 블루〈그림 54〉<sup>83)</sup>, 오렌지, 에메랄드, 금색, 은색과 같은 색조를 소개하여 동양풍의 유행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러한 아르테코의 강한 원색을 사용하여 기하학적 무늬의 단순화된 형을 표현했다. 또한 야수파와 러시아 발레단의 영향으로 붉은 보라(Rose Violet), 강렬한 핑크(Shocking Pink), 진홍색(Crimson), 강렬한 오렌지(Shocking Orange) 등 현란한 색상이 패션에 반영되었다.<sup>84)</sup> 그 밖에 아르테코의 영향으로 등장한 금속 소재에 의한 광택과 금속의 색채〈그림 55〉<sup>85)</sup>는 플래퍼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율동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흑인 예술의 도입으로 예술가들은 검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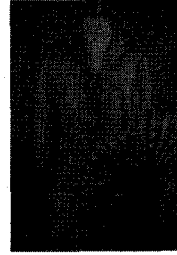
〈그림 54〉  
1923년 '가제트 뒤  
몽퉁'지에 실린 로디에의  
원색의 파란 슐, *20세기  
패션*, 2003, p.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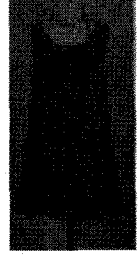
〈그림 55〉  
금속성 광택  
소재, *Fashion of  
the Roaring 20's*,  
1996, p. 29.



〈그림 56〉  
샤넬이 디자인한 시편과  
술로 장식된 검정색  
드레스, *1926년, 20세기  
패션 아이콘*, 2009, p. 65.



〈그림 57〉  
파스텔 톤의 핑크색 수트,  
*Fashion of the Roaring  
20's*, 1996, p. 68.



〈그림 58〉  
파스텔 톤 민트  
색상의 드레스,  
*Fashion of the  
Roaring 20's*,  
1996, p. 49.

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아르데코 이전까지는 관심 밖의 색이었던 검은색은 플래퍼 패션의 대표적인 특성인 단순성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색으로 20세기의 미가 되었다.<sup>86)</sup> 검은색은 시각적으로 물체의 경계에 관심을 집중시켜 강한 인상과 개성을 나타내며 객관적인 사실을 상징했다.<sup>87)</sup> 또한, 20세기 초반의 기능주의는 기계생산과 연관되어 블랙 패션에 박차를 가했고,<sup>88)</sup> 이러한 검은색은 과잉 장식을 배제한 장식미를 표현했다.<sup>89)</sup>

이러한 시기에 발표된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그림 56)<sup>90)</sup>는 시대적 단순미의 취향을 반영하여 형태와 컬러를 최소화한 것이었다.<sup>91)</sup> 샤넬의 심플한 직선형 실루엣 디자인은 검은색에서 세련되고 모던한 아름다움을 이끌어냈다. 샤넬이 리틀 블랙 드레스(Little Black Dress)를 디자인하기 이전에는 블랙은 어두운 이미지 때문에 상류층에게는 상복의 색이며, 서민층에게는 벗어버리고 싶은 색으로 여겨졌으나 샤넬은 이런 선입견에 정면으로 도전해 우아한 무드의 색으로 끌어올렸다.

## 2) 파스텔 톤 컬러(pastel tone color)

리조트 여행, 일광욕 등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배경으로 젊은이들의 제즈 파티와 해변의 분위기 등은 밝은 파스텔 조의 색채를 탄생시켰다.<sup>9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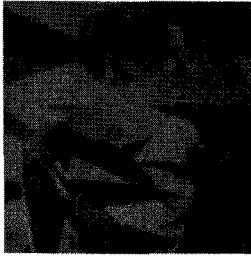
아르데코의 파스텔 색은 아르누보의 흐린 파스텔 색과는 차별화되어 pink(그림 57)<sup>93)</sup>, sky blue, mint

green(그림 58)<sup>94)</sup>과 같은 셔벗 톤(sherbert tone)으로 변했다. 이는 희망과 향수, 문명의 이익, 낭만, 젊음이 있는 새 시대의 색채로 등장하여 젊은 여성들의 리조트 웨어와 액세서리에 표현되었다.<sup>95)</sup> 살구색과 핑크톤, 레몬 옐로우, 민트, 옅은 보랏빛과 같은 파스텔 톤은 로맨틱한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트로피컬 파스텔(Tropical Pastel)컬러로서 표현되었다.<sup>96)</sup>

## 3) 기하학적 문양

아르데코의 문양은 면의 분할, 양식화시킨 동, 식물 문양, 기하학적 문양과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의 영향으로 받아들인 중국, 일본, 페르시아 문양과 이집트의 태양광선 문양 등이 추상화, 단순화되어 나타났다.<sup>97)</sup> 이러한 아르데코의 기하학적 문양은 절제되고 단순한 실루엣의 플래퍼 패션과 어울리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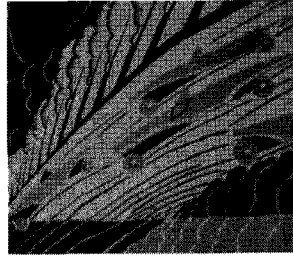
플래퍼 패션에 나타난 기하학적 패턴은 삼각형, 사각형, 타원형, 지그재그 등의 기하학적 형태와 여러 형태의 추상적인 선들(그림 59)<sup>98)</sup>이었다. 이러한 기하학적인 패턴에서 기계문명과 현대적 모던함을 느낄 수 있다.(그림 60)<sup>99)</sup> (그림 61)<sup>100)</sup>. 또한 플래퍼 패션에 나타난 블랙과 원색의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색의 사용은 기하학 문양형태와 조화를 이루었다.(그림 62)<sup>101)</sup> 기하학적인 요소가 플래퍼 패션의 색의 개념을 강조하고, 적절하게 만들었다.



〈그림 59〉 추상적 문양이  
사용된 의상, 1925.  
*Fashion of the Roaring 20's*,  
1996, p. 85.



〈그림 60〉 기하학적 문양의  
드레스.  
*Fashion of the Roaring 20's*,  
1996, p. 36.



〈그림 61〉 기계적 이미지,  
속도감의 스카프 디자인.  
*플래퍼 패션 디자인 연구*,  
1998, p. 70.



〈그림 62〉 체크  
소재로 된 드레스,  
*20세기 패션*,  
2003, p. 67.

## V. 플래퍼 패션의 미의식

### 1. 파격과 혁신의 미의식

1차 대전이 끝난 후 여성들은 세기말부터 진행하고 있었던 남녀평등, 참정권의 요구와 더불어 여성해방운동을 펼치고 있었고, 이런 사상적,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남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젊은 여성들을 '플래퍼'라고 부르게 되었다.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연애를 즐기고 개성적이며 활동적이었던 플래퍼들은 플리츠나 개더로 폭을 넓힌 길이가 짧아진 스커트에 낮은 구두를 즐겨 신었다. 플래퍼들은 짧은 머리와 짧은 스커트, 접어 신은 양말과 분칠한 무릎으로 개미같이 허리를 조인 갑슨 세대의 부모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외양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더 이상 가정과 전통에 가둘 수 없는 여성들로서, 다소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플래퍼는 '모던(Modern)' 했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머리 스타일은 길었으나, 플래퍼는 짧거나, 단발이었다. 전통적인 긴 머리를 과감히 잘라낸 보브컷, 하얀 얼굴, 검고 가늘게 그려진 눈썹, 붉은 입술, 종모양의 둥글며 두상을 완전히 감싸는 클로셰(Cloche)를 썼다. 한편 이러한 헤어 스타일에 어울리는 모자였던 클로셰(Cloche)도 이전 시대의 거대한 깃털 장식의 모자에 비해 매우 단순하여 플래퍼 스타일의 미적 기준을 대변했다. 클로셰는 눈썹정도까

지 깊게 눌러쓰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멀리서 보면 코와 입술만이 보이고 눈동자를 가려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기 어려운 특징이 있었다. 이는 현대 젊은이들의 반항적인 표현과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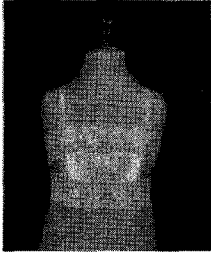
플래퍼 패션에서 볼 수 있는 짧은 헤어 스타일과 짧은 스커트, 직선적 실루엣, 육체의 노출, 가벼운 의복의 사용은 바로 이전 시대의 여성들이 지켜온 여성다움이라는 의미에서의 긴 헤어 스타일, 긴 스커트, 허리를 중심으로 한 아워 글래스 형태의 인공의 미, 온 몸을 감싸는 의복, 그리고 여러 겹의 의복을 착용 하였던 패션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전 빅토리아 시대에는 화장을 하는 것이 도덕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sup>102)</sup>되었으나 플래퍼 스타일에서 표현된 검고 깊은 눈, 강렬한 붉은 입술 화장은 전통을 거부하는 젊음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것은 전통적 관습과 가부장적 체제에 저항한 자유로운 여성 미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2. 젊음과 관능의 미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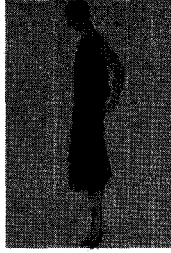
#### 1) 지속되는 젊음의 추구

스펠러(R. E. spiller)는 미국 문명을 건설한 근원적인 원동력이 이상주의와 물질주의라고 밝히고 있는데,<sup>103)</sup> 이러한 사상이 플래퍼들의 의식과 결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플래퍼들의 의식은 나이가 드는 것을 거부했고 언제나 지속되는 젊음을 추구하였다.

플래퍼 패션은 이전 시기까지 진행되어왔던 성숙하고 우아한 고전적 미의 추구가 이 시대에 와서 완



〈그림 63〉 납작한 가슴을 위한 속옷.  
*Fashion of the Roaring 20's*,  
1996, p. 47.



〈그림 64〉 납작한 가슴과  
마른 몸매의 플래퍼.  
*Vogue*. 1926. 6월호.



〈그림 65〉 1960년대 패션  
아이콘 모델 트위기.  
자료검색일 2010. 5. 10,  
<http://trendmap.tistory.com/1>



〈그림 66〉 신디 클로포드.  
자료검색일 2010. 7. 25,  
<http://www.somangnote.com/?photoID=1777178>

전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빅토리아 시대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은 결코 어려보이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플래퍼 패션에 의해 새로운 미의 기준으로서 등장한 젊음의 추구는 젊은 세대들이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서 꿈을 찾고자 하는 현실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패션을 이끄는 주도 세력이 이제 젊은 세대라는 사실의 근거가 되었다.<sup>104)</sup>

1920년대의 시대요구는 장식을 최소화하고 가늘고 긴 목, 납작한 가슴(그림 63)<sup>105)</sup>, 험은 두드러지지 않고 나뭇가지처럼 가는 다리의 보이시 룩으로써,<sup>106)</sup> 패션은 직선적이고 영(Young)한 실루엣을 강조했다. 이런 경향은 주로 발랄하고, 소녀 같기도 하고 소년 같기도 한 양성(兩性)적 모습을 어필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었다.(그림 64) 1920년대의 여성들을 위한 이상적인 몸매는 사춘기의 앳되고 소녀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뭔가 서툴고 덜 성숙해 보이는 것이 하나의 매력으로 간주되었다.<sup>107)</sup> 이 모든 것은 그 시대 여성들이 성숙하지 않은 젊음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원했음을 보여준 것이었고, 이는 결국 '젊음 지향'의 모습으로 도달한 것이다.

젊은 몸에 관한 숭배적 현상은 1920년대의 플래퍼 이후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60년대 트위기(Twiggy)(그림 65)스타일의 유행과 90년대 이후 새로운 경향으로 등장한 로리타(Lolita)스타일<sup>108)</sup>이 그것이다. 현대 패션에서 클라우디아 슈퍼나 신디 클로포드(그림 66)과 같은 섹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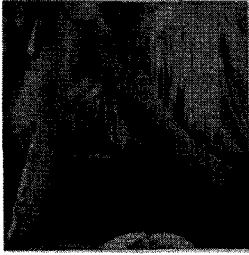
고 글래머러스한 모델이 선호되다가 소년 같기도 하고 가냘픈 요정 같기도 한 어린 모델이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탐미적 경향을 '로리타 신드롬'이라 한다. 이는 모성거부의 현상으로 보기도 하며, 현대 패션은 글래머러스와 어린 미성숙의 이미지가 반복되어 나타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sup>109)</sup>

이러한 맥락에서 플래퍼 스타일은 성적 정체성의 모호성보다는 사춘기 이전의 어린 모습에 대한 동경이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10)</sup> 한편 이러한 동경은 자기 삶에 대한 정체성을 표현하려는 젊음의 자유주의 특성과 관계된다. 또한 플래퍼 스타일은 글래머러스한 섹스심벌과는 또 다른, 로리타 콤플렉스와 연결되는 새로운 섹슈얼리티를 표현했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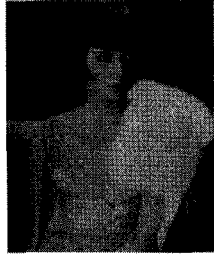
## 2) 노출에 의한 관능적 표현

조규화는 현대 패션의 특징 중 하나로 짧은 스커트 아래로 드러난 다리를 지적했다.<sup>111)</sup> 플래퍼 패션에 있어 다리의 노출(그림 67)<sup>112)</sup>은 성적인 매력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이었으며, 이후 현대 패션의 영(Young) 이미지의 상징적 요인이 되었다.

직선적이고 단순한 실루엣에 에로틱한 분위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플래퍼들은 육체의 노출을 선택했다. 플래퍼 패션의 단순성과 기능성의 보이시 스타일은 여성스러움을 포기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저항적인 의식을 표현하면서도 노출미를 통한 여성적인 로맨틱 감각(그림 68)<sup>113)</sup>을 표현했다. 또한 완전한 육체의 노출에 머물지 않고 노출된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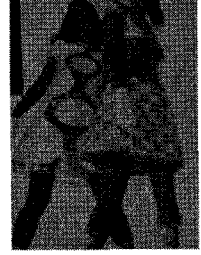
〈그림 67〉 플래퍼 패션의 다리 노출.  
*Fashion of the Roaring 20's*,  
1996, p. 131.



〈그림 68〉 노출로 인한  
관능적 표현.  
*영화 시카고의 복식과  
색채이미지 연구*,  
2008 p. 27.



〈그림 69〉 섀텐으로 그을린 피부.  
David Bond, 정현숙 역 (1992),  
*20세기 패션*,  
서울: 경춘사, p. 85.



〈그림 70〉 우주복 느낌이  
반영된 60년대 앙드레  
쿠레주의 미니 스커트,  
*현대패션100년*,  
2002, p. 213.

분을 얇고 가벼운 시폰 등의 소재로 덮어 간접적이 섹슈얼리티를 표현했다. 이러한 노출된 피부에 현대적 세련미를 더하는 방법으로 섀텐(suntan)이 유행하였다. 〈그림 69〉는 1920년대 담배 광고로서, 여성들이 강한 섀텐으로 얻은 갈색 피부에 빨강색의 입술 화장을 해서, 관능적인 모습을 연출한 것을 보여준다. 그을린 피부의 노출은 원시주의에 대한 관심과도 영향이 있다. 탄력 있는 건강한 피부의 노출은 새로운 원시적인 힘을 느끼게 했고, 섀텐의 검은색이 갖는 미묘한 이중성, 즉 젊은이들이 삶에 대해 느끼는 혼란스런 이중적 태도를 느낄 수 있다.

플래퍼 패션의 노출에 대해 중요한 점은 '육체의 노출은 바로 젊음 표현의 전형'이라는 점이다. 1920년대 플래퍼들과 유사한 분위기로 자주 주목되는 60년대에도 미니 스커트(그림 70)<sup>114)</sup>와 함께 노출 패션이 유행했었고, 이러한 노출패션은 바로 반항적인 젊음의 상징이었다.

### 3. 자유와 유희의 미의식

#### 1) 자유로운 정신의 표현

플래퍼 패션은 헐렁하고 직선적 실루엣에 의한 자유로운 의복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새로운 소재에 의한 플래퍼 패션의 기능성은 곧 시대 정신의 표현이었다. 젊음과 자유의 사회풍조는 패션에 있어 가볍고 신체를 억압하지 않는 신축성 있는 소재의 유행을 불러 일으켰다.<sup>115)</sup> 이것은 젊음과 자유의 열망이 강

했던 1960년대의 라이크라(Lycra) 소재가 등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따라서 레이온, 저지와 같은 신소재의 사용은 현대 패션에 있어 기능성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루브너(Ellie Laubner)는 플래퍼의 짧은 드레스와 스트랩(strp)이 있는 구두는 플래퍼들이 빠르게 움직임의 자유를 위해 필요로 했던 기능성이 반영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sup>116)</sup> 플래퍼 스타일의 주름치마, 플레어, 무의 사용도 움직임을 위한 것이었다.<sup>117)</sup>

이와 같이 플래퍼 패션에서 기능성을 추구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1920년대의 이상적인 여성미였던 젊고 슬림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 스포츠가 중요한 덕목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플래퍼 패션을 대표하는 샤넬과 파투는 결국 둘 다 같은 목적을 위해 프릴 장식을 버리고, 보다 입기 편리한 옷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새로운 경향으로서 기능적이고 단순미를 추구하였다.<sup>118)</sup>

#### 2) 재즈와 춤의 유희

플래퍼 패션의 드레스는 부드럽고 얇은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나풀거리는 패넬이 달려 있었다. 또한 커프스에는 술 장식이나 스커트 패넬을 달아 늘어뜨리고 얼굴 양 옆에는 긴 귀걸이를 달았다.<sup>119)</sup> 플래퍼 패션은 디자인에 시각적 리듬감을 부여하거나 반짝임, 달랑거림의 요소를 추가해서 스피디한 리듬감을 표현했다. 디자인에 있어서 리듬감을 나타내기 위해 프릴,

<표 1> 플레퍼 패션의 미의식 도출 과정

플레퍼 패션의 사회, 문화적 배경	재즈와 댄스	기계문명의 발달	영화 산업과 문학작품	스포츠와 여가생활	페미니즘	아르데코
특징	-자유와 즉흥연주가 특징인 재즈의 유행. -찰스턴, 블랙버텀, 심미와 같은 빠르고 리드미컬한 춤 유행.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의 운송수단 발달.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한 미디어의 보급.	-할리우드 영화 배우가 패션 아이콘으로서 유행을 전파. -당시 젊은이들의 삶을 반영한 문학작품.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여가생활에 반영. -짧고 슬림한 몸매를 위한 스포츠.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 활발. -성의식 변화.	-큐비즘, 발레위스, 아프리카에 스타일의 영향. -기능적, 기하학적 스타일.
플레퍼 패션의 조형적 특징	절제되고 단순한 형태	가볍고 흔들리는 장식과 소재		새롭고 흥미로운 색과 문양		
특징	-스트레이트 실루엣, 로우 웨이스트. -짧아진 스커트와 헤어 스타일. -의복을 인체와 무관하게 재설정하여 새로운 형태를 제시함.	-가벼운 신소재의 개발. -흔들리는 장식, 프릴, 플라운스. -비즈, 프린팅, 깃털장식 -비대칭적 장식		-블랙과 원색의 사용.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리조트 웨어. -기하학적 문양.		
플레퍼 패션의 미의식	파격과 혁신의 미의식	젊음과 관능의 미의식		자유와 유희의 미의식		
특징	-전통의 거부와 현대성의 추구 -커리어 우먼의 사회적 태도	-미성숙한 소녀의 이미지 -노출에 의한 관능적 표현		-자유로운 정신의 표현 -재즈와 춤의 유희		

플라운스, 플레이등을 사용하거나 비 대칭적인 구성으로 한 쪽에만 장식을 하여 흘러내리도록 했고, 움직일 때마다 스커트 자락이 펄럭이도록 층층히 레이어드하기도 했다. 이러한 디자인과 장식은 당시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활동과 더불어 역동적인 여성의 모습을 표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재즈에 맞추어 추는 춤인 찰스턴(Charlestone), 심미(Shimmy), 블랙 버텀(Black Bottom)과 상당히 어울렸다. 일정하지 않은 길이의 비즈 장식은 재즈 음악에 맞춰 춤을 출 때 마다 흔들리면서 역동성과 리듬감을 더해주고, 짧은 스커트로 인한 다리의 노출과 씨 스루(see through)소재로 관능적이고 에로틱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춤은 인간의 내적 욕망을 표출할 수 있는 예술인 동시에 유희적 수단이기도 하다. 패션과 더불어 재즈와 춤은 플레퍼들을 정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다. 형식이 없는 듯 자유로운 구조, 흔들리면서 휘감

기는 움직임, 에로티시즘과 섹슈얼리티의 우아한 표현 등이 춤과 재즈, 플레퍼 패션을 통해 표현되었다. 신체적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전통으로부터의 자유는 당시의 기계적 속도감, 재즈의 리듬과 댄스의 빠른 움직임등과 부합되어 이 시기의 자유와 유희를 표현하는 상징적 요소였다. 이러한 리드미컬한 표현은 스피드로 대변되는 기계문명의 현대성과 자유로운 젊음의 속성이 함께 표현된 절충적 특징이다. 재즈가 가지고 있는 즉흥성, 아르데코의 현대성,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인 자유의 추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자 하는 플레퍼들의 내적욕구가 조형적으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의 인스피레이션으로서



되풀이 되는 주제로서 1920년대 플래퍼 패션의 미의식을 탐구하여 고찰하였다. 그에 따른 연구 과정으로, 1920년대 미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플래퍼 패션에서 외적으로 나타난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분석한 플래퍼 패션의 조형적 특성은 직선형 실루엣, 코르셋으로부터의 해방, 로 웨이스트, 짧은 스커트, 짧은 헤어 스타일로 표현되는 절제되고 단순한 형태로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움직임은 강조하는 장식과, 동작을 편하게 하는 가벼운 소재와 트임 등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블랙과 비비드 컬러, 선명한 색감의 파스텔조 컬러, 기하학적 문양 등이 기계문명, 그리고 향락과 유희의 파티 문화를 표현했다.

플래퍼 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그 조형성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미의식을 도출하였다. 전통적인 미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거부와 표현으로써, '파격과 혁신의 미의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플래퍼 패션에서 볼 수 있는 짧은 헤어 스타일과 짧은 스커트, 직선적 실루엣, 육체의 노출은 온 몸을 감싸는 의복, 그리고 여러 겹의 의복을 착용하였던 빅토리아 시대의 패션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었다. 또한 1920년대는 젊음과 새로움이 그 원동력이 되는 변화의 시대로서, 성숙하고 우아한 고전적 미의 추구가 완전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플래퍼 패션은 어린 소녀와 같이 보이려는 목적이 있었다. 또한 플래퍼 패션은 어린 소녀 풍의 길고 가는 팔과 다리의 노출을 통해 관능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형적 특징에서 플래퍼 패션에 내재된 '젊음과 관능의 미의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 플래퍼 패션은 가볍고 신체를 억압하지 않는 신축성 있는 소재의 유행을 불러 일으켜 디자인에 시각적 리듬감을 부여하거나 반짝임, 달랑거림의 요소를 추가해서 스피디한 리듬감을 표현했다. 이러한 디자인과 장식은 당시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활동과 더불어 역동적인 여성의 모습을 표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행한 춤과도 어울려 플래퍼 패션의 '자유와 유희의 미의식'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플래퍼 패션의 미의식은 구시대의 전통과 질서가 붕괴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성들이 플래

퍼 패션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들의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사상을 표현할 수 있었던 내적 의지라 할 수 있겠다. 플래퍼 패션의 시대는 젊은 세대의 첫 번째 반항의 시대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이후의 영 패션 디자인에도 꾸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세기 이후 현대 패션은 새로운 스타일의 등장으로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 패션의 인스피레이션으로서 되풀이 되는 주제로서 1920년대 플래퍼 패션의 미의식을 탐구하여 고찰하였다. 플래퍼 패션은 변화의 주연이자 시대 정신의 표상이었다. 20세기 초반 여성들의 지속되는 젊음에 대한 갈망은 플래퍼 패션으로 실현되었고,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젊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욕망은 진화된 플래퍼의 등장을 기대하게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1920년대 플래퍼 패션에 관한 연구는 현대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영감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동시에 미래 지향적인 패션 이미지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후속연구로서 20세기 초반 이후에서 현재까지 변화되어 나타난 플래퍼 패션에 대한 고찰과, 그것이 현대 패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1) Longman Group Ltd (1978).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3rd ed.)*. New York: Longman, p. 533.
- 2) *The New Oxford Illustrated Dictionary* (197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634.
- 3) America Heritage 사전은 플래퍼를 원래 어린 매춘 여성을 가리키던 영국의 속어로서, 전통적인 의상이나 격식을 무시하는 1920년대 젊은 여성이라고 설명한다. Historical Dictionary of American Slang에서는 더욱 다양한 설명이 등장한다. ①1830년대 경에는 손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 명사 ②야윈 말 ③단순한 성격의 사람을 일컫는 속어 'flap'에서 나온 명사 ④팝(the pop)의 의미. 1920년대의 여성 타입. 냉소적 태도와 성에 대한 솔직한 관심, 짧고 직선적인 드레스, 단발머리, 무릎 근처에서 말려진 스타킹 등을 포함한 대담하고 새로운 패션을 좋아하는 젊은 여성. ⑤동사로 사용할 때는 '단순한 생각의 사람, 즉 풋내기, 신출내기들이 장난치다. 짓궂게 굴다. 혹은 수다 떨다. 흥분하다. 혼동되다. 억압으로부터 탈출하다' 등이다.
- 4) 이희승 (1990).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p. 4048.

- 5) 조규화 (1995). *복식사전*. 서울: 경춘사, p. 656.
- 6) Charles Panati. *Panati's Parade of Fads, Follies and Manias: The Origins of Our Most Cherished Obsessions*. 이용웅 역 (1997). *문화와 유행상품의 역사: 트렌드와 히트상품으로 본 미국문화 100년사*. 서울: 자작나무, p. 255.
- 7) 박혜원 (1998). *플래퍼 패션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24.
- 8) 조규화 (1995). *복식사전*. 서울: 경춘사, p. 656.
- 9) Valerie Steel (1985). *Fashion and Eroticism: Ideal of Feminine Beauty from the Victorian Era Jazz Age*. New York, Oxford: Oxford Press, p. 239.
- 10) 박혜원. *앞의 책*, p.
- 11) John Fordham (1917). *Jazz*. London: Dorling Kindersley Limited, p. 27.
- 12) 油井正一 (1995). *재즈의 역사*. 서울: 삼호 출판사, pp. 376-377.
- 13) 세광음악출판사 (1990). *음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p. 1313.
- 14) Jacqueline Herald (1994). *Fashion of a Decade: 1920's*. London: B.T. Batsford, p. 30.
- 15) 이용웅 역. *앞의 책*, pp. 292-295.
- 16) 박혜원. *앞의 책*, p. 9.
- 17) Caroline Rennolds Milbank (1996). *New York Fashion: The Evolution of American Style*. New York: Harry N. Abrams, p. 36.
- 18) *Ibid.*, p. 11.
- 19) 오진경 (1987). *웨어블 패제의 기계미학 연구- 반복적 모티브에 의한 작품을 중심으로, 현대 미술의 동향*. 서울: 미진사, p. 183.
- 20) 박혜원. *앞의 책*, pp. 16-17.
- 21) Herald, Jacqueline (1991). *Fashion of Decade: 1920s*. London: B.T. Batsford Ltd., p. 6.
- 22) Ellie Laubner (1996). *Fashion of the Roaring 20s*. Philadelphia: Schiffer Publishing Ltd., p. 7.
- 23) Chenoune, Farid (1993). *History of Men's Fashion*. Paris: Flammarion, p. 14.
- 24) David Bond. *The guinness guide to twentieth century fashion*. 정현숙 역 (1992). *20세기 패션*. 서울: 경춘사, p. 87.
- 25) 박혜원. *앞의 책*, p. 71.
- 26) *위의 책*, p. 83.
- 27) *위의 책*, p. 87.
- 28) 자료검색일 2010. 5. 10. 자료출처 [http://en.wikipedia.org/wiki/Elinor\\_Glyn](http://en.wikipedia.org/wiki/Elinor_Glyn)
- 29) 자료검색일 2010. 5. 7. 자료출처 <http://en.wikipedia.org/wiki>
- 30) 박혜원. *앞의 책*, p. 74.
- 31) *위의 책*, p. 72.
- 32) 신혜진 (2003). *플래퍼의 상징과 문화적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2.
- 33) 김슨걸(Gibson girl)의 이미지는 1890년 화가 찰스 다나 김슨(Charles Dana Gibson)이 [라이프(Life)]지에 그림들을 연재하면서 등장하였고, 많은 미국인들의 인기를 끌며 1890년대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었다. Lynn D. Gordon (1987). *The Gibson girl goes to College: Popular Culture and Womens Higher Education in the Progrssive Era, 1890-1920*. American Quarterly 39(Summer 1987), p. 211.
- 34) Lois W Banner (2004). *Women in Modern America: A Brief History*.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p. 149.
- 35) Valerie Mendes, Amy de la Haye. *20th Century Fashion*. 김정은 역 (2003). *20세기 패션*. 서울: 시공아트, p. 64.
- 36) 박혜원. *앞의 책*, pp. 26-27.
- 37) Gerda Buxbaum. *Icons of Fashion-The 20th Century*. 금기숙, 남후남, 박현신 역 (2009). *20세기 패션 아이콘*. 서울: 미술문화, p. 54.
- 38) 김정은 역. *앞의 책*, p. 143.
- 39) Adrian Bailey (1988). *The Passion for Fashion*. Great Britain: Dragons Word Ltd., p. 141.
- 40) Ellie Laubner. *op. cit.*, p. 73.
- 41) 금기숙, 남후남, 박현신, 허정선 역. *앞의 책*, p. 52.
- 42) 정현숙 역. *앞의 책*, p. 81.
- 43) James R. MCGovern (1968). *The American Woman's Pre-World War I Freedom in Manners and Morals. Journal of American History(55)*, p. 318.
- 44) Janet Wallach (1998). *Chanel: Her Style and Life*. New York: Nan A. Talese/Doubleday, p. 74.
- 45) *Ibid.*, p. 46.
- 46) *Ibid.*, p. 67.
- 47) *Ibid.*, p. 12.
- 48) 김주영. *앞의 책*, p. 8.
- 49) 채금석 (1993). *Feminism이 서양여성복식에 미친 영향*. 창원: 창원대 논문집, 15권, p. 272.
- 50) 코디 최 (2009). *20세기 문화지형도*. 서울: 안그라픽스, p. 49.
- 51) 정시화 (1992). *현대 디자인 연구*. 서울: 미진사, p. 175.
- 52) Taschen (2002). *ファッション 18世紀から現代まで*. 深井晃子. 周防珠實 京都服飾文化研究財團コレクション. p. 338.
- 53) 김정은 역. *앞의 책*, p. 40.
- 54) Cally Blackman (2007). *100 Years of Fashion Illustration*. London: Laurence King, pp. 30-31.
- 55) 이은지 (2003). *아트데코 패션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1.
- 56) 김정은 역. *앞의 책*, pp. 60-61.
- 57) 박혜원. *앞의 책*, p. 75.
- 58) 자료검색일 2010. 9. 26.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qnnp486/60110971951>
- 59) 최옥수 (2006). *20세기 초 패션에 나타난 직물문양의 예술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6.
- 60) 금기숙, 남후남, 박현신, 허정선 역. *앞의 책*, p. 55.
- 61) *위의 책*, p. 76.
- 62) Georgina Howell (1975). *In Vogue: six decades of*

- fashion*. Michigan: Illust, p. 75.
- 63) 박혜원. *앞의 책*, p. 43.
- 64) Ellie Laubner. *op. cit.*, p. 12.
- 65) 정현숙 역. *앞의 책*, p. 71.
- 66) 위의 책, p. 32.
- 67) 박혜원. *앞의 책*, p. 79.
- 68) Ellie Laubner. *op. cit.*, p. 28.
- 69) Valerie Steel. *op. cit.*, p. 235.
- 70) 홍진희 (2008). *영화 시카고의 복식과 색채이미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2.
- 71) 박혜원. *앞의 책*, p. 45.
- 72) 정현숙 역. *앞의 책*, p. 84.
- 73) Ellie Laubner. *op. cit.*, p. 51.
- 74) *Ibid.*, p. 49.
- 75) 박혜원. *앞의 책*, p. 88.
- 76) 정현숙 역. *앞의 책*, p. 68.
- 77) Caroline Rennolds Milbank. *op. cit.*, p. 83.
- 78) *Ibid.*, p. 81.
- 79) Ellie Laubner. *op. cit.*, p. 36.
- 80) *Ibid.*, p. 27.
- 81) Ewing, Elizabeth (1992).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London: Thames and Hodson, p. 91.
- 82) 김정은 역. *앞의 책*, p. 81.
- 83) 위의 책, p. 70.
- 84) 김현정 (1997). *여성용 직물 디자인 연구 -아르테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 27.
- 85) Ellie Laubner. *op. cit.*, p. 29.
- 86) 조규화, 이희승 (2004). *패션미학*. 서울: 수학사, p. 200.
- 87) Gilles Neret (2002). *Henri Matisse*. London: Taschen, p. 208.
- 88) 검은 드레스는 디트로이트의 공장에서 나오는 자동차 못지않게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여 '샤넬의 포드'라고 불렀다.
- 89) 홍진희. *앞의 책*, p. 27.
- 90) 금기숙, 남후남, 박현신, 허정선 역 (2009). *앞의 책*, p. 65.
- 91) Janet Wallach. *op. cit.*, p. 80.
- 92) 홍진희. *앞의 책*, p. 26.
- 93) Ellie Laubner. *op. cit.*, p. 68.
- 94) *Ibid.*, p. 49.
- 95) 조규화, 이희승. *앞의 책*, p. 115.
- 96) 이은지. *앞의 책*, p. 24.
- 97) 김주영. *앞의 책*, p. 3.
- 98) Ellie Laubner. *op. cit.*, p. 85.
- 99) *Ibid.*, p. 36.
- 100) 박혜원. *앞의 책*, p. 70.
- 101) 김정은 역. *앞의 책*, p. 67.
- 102) Jacqueline Herald. *op. cit.*, p. 48.
- 103) Robert Spiller (1972). *The Cycle of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Macmillan, p. 5.
- 104) 박혜원. *앞의 책*, p. 57.
- 105) Ellie Laubner. *op. cit.*, p. 47.
- 106) Yarwood, Doreen (1992). *Fashion in the Western World*. London: B.T. Batsford Ltd, pp. 137-138.
- 107) 정현숙 역. *앞의 책*, p. 69.
- 108) 나보코프의 소설 'lollita'의 주인공 이름에서 유래. 중년의 남성이 14세 소녀의 매력에 끌려 끝내는 살인까지 저지른다는 이야기로 패션 감각에서는 이 로리타의 이미지로 소녀 특유의 건강함과 몽상적인 자태미가 그 특징으로 되어 나타난다. 김종복 (1997). *패션감각연구*. 서울: 도서출판 시대, p. 134.
- 109) 삼성패션연구소 (1996). *Fashion forum*, 42.
- 110) 최비숙 (1997). *미니 스타일 복식의 문화적 의미- 6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36.
- 111) 조규화 (1996).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p. 284.
- 112) Ellie Laubner. *op. cit.*, p. 131.
- 113) 홍진희. *앞의 책*, p. 27.
- 114) 현대패션100년편찬위원회 (2002). *현대패션100년*. 서울: 교문사, p. 213.
- 115) 박혜원. *앞의 책*, p. 47.
- 116) Ellie Laubner. *op. cit.*, p. 8.
- 117) Nunn, Joan (1984). *Fashion in Costume 1200-1980*. London: Jolly and Barber Ltd., p. 188.
- 118) Adrian Bailey. *op. cit.*, p. 141.
- 119) Black, J. Anderson, Garland, Madge(1980). *A History of Fashion*. 윤길순 역 (1997). *세계패션사 2*. 서울: 자작아카데미, p. 176.